

'26. 1. 9(금) / 대테러종합상황실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테

- 韓, 최근 기업 건물 겨냥한 허위 폭파 협박 계속
 - 1.1 언론은 최근 삼성전자·카카오·네이버 등 기업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, 강남 토스뱅크 사무실 겨냥한 신고도 접수되어 경찰특공대가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
- 韓, 삼성·카카오 폭발물 협박 관련 10대 용의자 수사 중
 - 1.5 언론은 지난해 12월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 의심 사례 11건에 관련 인물은 모두 4명이며 전부 10대로 파악되었고, 경찰은 이 중 범죄 혐의점이 의심되는 1명에 수사 중이라고 보도
 - ※ 경찰은 가상사설망(VPN)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염두하고 VPN 관련해서 적용하는 수사기법을 통해 구체적인 용의자를 밝혀낼 방침이라고 부언
- 파키스탄, '아프간 테러리스트 거점화' 우려 제기(연합뉴스)
 - 1.7 언론은 파키스탄 軍 당국이 시리아 내전 이후 외국 무장 세력 약 2,500명이 아프간으로 유입돼 테러 거점이 되고 있다며 비판했으나 탈레반은 근거 없는 도발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고 보도
 - ※ 파키스탄군은 '25년 무장단체 공격이 5,397건이 발생해 '24년 3,014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다수 사건에 아프간 국적자들이 연루되었다고 부언

미 주

- 美, 위장 수사를 통해 '테러 모의'한 청년 검거
 - 1.3 언론은 美 검찰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테러 공격을 모의한 「스터디번트(18세)」를 기소했으며, 용의자가 IS를 추종하며 유대인·기독교인·성소수자를 표적으로 참고 1년간 테러를 계획했다고 보도
 - ※ 美 FBI는 용의자를 잠재적 위험인물로 보고 감시해 오다가 IS 조직원으로 위장한 요원에게 테러 계획을 밝히자 검거했다고 부언

유럽

- **獨, 베를린 방화 배후인 극좌단체 테러 혐의로 수사**
 - 1.7 언론은 독일 연방검찰이 지난 3일 自國에서 발생한 송전 케이블 방화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좌익 극단주의단체(불칸그룹^{*})에 대해 테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
 - * 좌파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범행을 자백하며 反 자본·기술·제국주의 메시지 발표 ('11년 첫 방화 이후 베를린과 인근 철로·송전설비 등에 12차례 방화 추정)

중동

- **英·佛 공군, 시리아 IS 지하 무기고 표적 공습**
 - 1.4 언론은 英과 佛 공군이 시리아 중부 팔미라 북쪽 산악 지역에 있는 이슬람국가(IS) 무기 저장 시설을 표적으로 공동 공습을 실시하여 지하 시설로 이어지는 여러 접근 터널을 타격했다고 보도
 - ※ 해당 시설은 정보 분석 과정에서 IS가 무기와 폭발물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민간인 거주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
- **하마스, 반대 파벌 무장단체와 총격전으로 2명 사망**
 - 1.6 언론은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비호 의혹을 받는 「라미 헬레스^{*}」의 '인민방위군'과 약 20분간 교전해 하마스 대원 2명이 숨지고, 드론 공격과 차량 폭발로 민간 피해도 발생했다고 보도
 - * 가자지구 슈자이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파타(Fatah) 계열 인물로,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가진 가자 내부 정치·치안 세력의 핵심 인사로 평가

아프리카

- **소말리아, 알샤바브 테러리스트 대상 대테러작전 실시**
 - 1.4 외신은 소말리아 특수부대가 알샤바브의 주요 거점인 중부 주바 지역의 질립 지구에서 야간 대테러작전을 수행하여 15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했다고 보도
 - ※ 최근 소말리아군은 16년 이상 테러활동을 수행 중인 알샤바브에 대해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아 공중 및 지상작전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JNIM, 베냉 국경지대에서 軍 대상 폭탄·총격 테러

- '25. 1. 8일 JNIM 부대는 베냉, 부르키나파소, 니제르의 국경이 접한 알리보리주 포인트 트리플 지역에서 베냉軍을 상대로 무장 공격 감행
 - 특히, 사전에 준비한 급조폭발물(IED)을 사용하여 초소 방어선을 돌파하였으며 이후 중무장한 무장 세력들이 주둔 중인 병력들을 대상으로 교전을 시행하여 군인 30명 사망
- 이후, 베냉軍은 지상 증원군과 공중 지원을 통해 반격 작전을 개시하였으며 도주하는 무장 세력까지 추적하여 40여 명을 사살
- 이와 관련, UN 및 UAE 등 인접 국가에서는 군사시설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헬 지역 테러단체 확장 대응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
 - 또한, 전문가들은 JNIM의 활동 영역이 사헬 지역 극단주의 확산을 넘어 베냉 등 해안국까지 영향권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국제 사회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평가한 사건

테러 상식

< JNIM(Jama'at Nusrat al-Islam wal-Muslimin) >

- (결성) '17년 3월 2일 지도자인 『이아드 아그 갈리』가 알카에다 최고 지도자 대상 충성을 서약하는 영상을 통해 결성 발표
- (성격) 말리 기반 여러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결합된 알카에다 계열의 무장단체
- (활동지역) 말리, 알제리, 니제르, 리비아, 모리타니, 튀니지, 베냉, 토고 등
- (규모) 5,000 ~ 6,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
- (주요활동) 무장공격, 점령지역 영토 통제, 테러자금 조달 등
- (주요테러) ('24. 2월) 말리 쿨리코로주 軍 대상 폭탄 테러(사망 40명)
('24. 8월) 부르키나파소 산마텐가주 민간인 대규모 학살(사망 600명)
('25. 4월) 베냉 알리보리주 軍 대상 공격(사망 70명)